



Market Index / 18일

코스피지수 ▲ 2308.98 +5.97

코스닥지수 ▲ 831.85 +2.97

유가(WTI, 달러) ▼ 68.91 -0.08

환율(원)

1USD 1143.67 100¥ 1020.26

1104.33 985.18

1EUR 1340.15 171.80

1287.87 155.44

경제인 제주 <15> 플렉싱크 송재훈 대표

“기존의 것을 개선하는 것은 혁신이 아니다”

최고 기술력·경험 바탕 ‘스마트라이프 산업’ 리드 비즈니스는 ‘기술’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어 내실있는 회사 만들어 직원들에 넘겨주고 또 창업

“It’s better to be a pirate than to join the Navy”(해군이 되는 것보다 해적이 되는 것이 낫다). 원칙을 중요시하기보다 창조성이나 위험을 감수하는 용기를 갖으라고 스티브 잡스가 했던 말이다. 제주지역에서 해적 정신으로 4차산업에 대비하며 앞으로 전진하는 기업이 있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서 위치한 (주)플렉싱크가 그 기업이다. 사무실 입구에는 해적 그림과 함께 ‘열심히 일하자 그리고 먹고 마셔라’라는 문구를 내걸었다.

(주)플렉싱크의 송재훈(45) 대표는 “플렉싱크(Flexink, Flexible + Think)의 회사이름은 유연한 생각으로 고객에게 행복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회사를 소개했다.

송 대표는 국내 최대 자동차 회사의 네비게이션 개발업체에서 활동하다가 2010년 5월 제주시청 인근에 ‘두드림’이라는 회사를 창업했다.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으로 방송통신융합에 집중했다. 택시용 블랙박스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스마트폰 전용 스마트 마우스(smart mice) 프로그램도 자체 제작했다. 그러나 2007년 6월 애플의 야심적인 아이폰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디지털 환경은 크게 바뀌었다. 방송과 통신기술을 묶어 디지털에 초점을 맞췄지만 변화 폭은 예상보다 컸다.

송 대표는 2011년 모바일 스트리밍 서비스를 론칭하고 데이터 서비스를 강화했다. 하지만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밀리면서 2013년까지 힘든 시기를 보내야 했다.

송 대표는 “기업의 특성상 변화를 준비하고 고객의 요구에 맞춰야 하지만 준비가 상대적으로 부족했어요. 직원은 10명으로 늘었는데 월급 주기 조



송 대표는 국내 최대 자동차 회사의 네비게이션 개발업체에서 활동하다가 2010년 5월 제주시청 인근에 ‘두드림’이라는 회사를 창업했다.

차 힘들었습니다. 결국 은행 대출까지 받았다”고 힘든 시절을 고백했다.

그에게 변화가 필요했다. 선택은 생각의 전환이었다. 직원들과 많은 대화의 시간을 갖기 위해 노력했다. 직책을 없애고 직원들끼리는 호칭을 ‘00님’으로 통일했다.

어느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20

14년 셀프케어 관광객을 위한 스마트 웰니스(Wellness) 서비스를 개발했다. 2015년에는 나노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선보여 스마트그리드 관련 사업에도 본격 진출했다. 매출액도 연간 15억원 수준으로 늘었다. 올해는 25억원 가량을 예상하고 있다.

송 대표는 그동안 회사운영을 통해 비즈니스를 바라보는 시각에 변화가 있었다고 했다. ‘기술’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었다고. 또 내가 다 하려는 욕심을 버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적으로 시도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남들이 잘하는 분야는 적극적인 파트너십 구축으로 보완을 시도한다는게 그의 경영원칙이기도 하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 송 대표는 “그동안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분야는 데이터 수집/분석/관리라고 생각한다. 다양한 데이터(빅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지역 산업(관광 산업 등)에 적용해 웰니스 서비스를 런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기반으로 제주지역 기업과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한다는 희망사항도 피력했다.

그의 계획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말레이시아 법인을 설립하는 등 해외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기반으로 2019년부터는 매출 발생을 예상하고 있다. 그의 다음 얘기를 듣고는 귀를 의심할 수 밖에 없었다. “남들이 하고 싶은 코스닥 상장 같은 것엔 관심이 별로 없다. 내실있는 회사를 만들어 직원들에게 넘겨주고 또 다른 회사를 창업(도전)하려고 한다.”

송 대표는 “창업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자신이 세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방법이다. 도전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라면 창업에 꿈을 실현할 수 있지 바란다”고 제주의 청년들에게 당부했다. “단, 준비되지 않은 채 창업하지 마라! 3년내 폐업률 70%! 망하더라도 손해나지 않게 망해라! 그래야 다음 기회를 잡을 수 있다. 0(zero) to 1(one)을 항상 생각하라. 기존의 것을 개선하는 것은 혁신이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조상윤기자 sycho@ihalla.com

제주 주택거래 월 800건... 증감폭 미미

8월 한달 680건 거래 올들어 가장 적어 전월세 964건으로 43.7%↑... 전국 최고

제주지역 주택거래건수가 월평균 800건 가량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7월을 제외하고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올 8월말 기준 전국 주택매매거래량은 6만5945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9만6578건과 5년 평균 8만2358건에 비해 각각 31.7%, 19.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들어 8월말까지 누계 주택매매거래량은 56만7027건으로 65만2750건이던 지난해에 비해 13.1% 감소했으며, 5년평균(65만6669건)에 비해서도 13.7%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3만8604건이 거래되며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32.4%, 지방은 2만7341건으로 30.8% 감소했다. 8월까지 누계기준도 수도권 거래량(30만7743건)은 12.4%, 지방(25만9284건)은 13.9% 줄어 들었다.

제주지역인 경우 680건이 거래되면서 7월을 비해 178건이,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선 21건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들어 가장 적은 거래건수를 기록했다. 올들어 1월 887건, 2월 706건, 3월 735건, 4월 836건, 5월 703건, 6월 1000건, 7월 858건이었다. 올들어 누적 거래건수는 6405건으로 지난해 6232건에 비해 82건 정도 증가했다. 5년 평균에 비해 14.6%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아파트 거래량은 4만2894건으로 지난해보다 33.3%, 연립·다세대(1만3711건)는 27.1%, 단독·다가구 주택(9340건)은 30.7% 각각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8월 누계기준으로는 아파트(36만9912건)는 12.2%, 연립·다세대(11만3728건)는 15.4%, 단독·다가구(8만3387건)는 13.8% 각각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상윤기자

오늘 지속가능 관광 국제컨퍼런스 개최

이탈리아·베네치아 사례 발표

‘지속가능한 섬 관광을 위한 미래발전 방향’을 주제로 한 2018 제주국제 컨퍼런스가 19일 제주웰컴센터 1층 웰컴홀에서 개최된다.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가 마련한 이번 컨퍼런스는 주민과 관광객이 모두 만족할 공존·상생 대안을 찾아 제주관광 질적 성장의 발판을 만들기 위해 기획됐다. 세계 유수의 관광지이자 오버투어리즘(Over-Tourism)의 이슈지역으로

부각되고 있는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등 현지 관광정책 관계자가 참석한다.

컨퍼런스에서는 ‘위기의 관광지: 새로운 트렌드와 직면한 과제’라는 주제의 기조강연과 ‘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사회적 이슈와 문제’를 주제로 한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사례, ‘과잉관광 관련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주민자치기구의 사례’를 주제로 한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사례 발표가 이어진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조달업체 현장 방문 김현태 제주지방조달청장은 18일 제주시 이호1동에 위치한 (주)용지산업개발의 ‘지하수상부보호공’ 제조현장을 둘러보고 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사진=제주지방조달청 제공

제주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보합세’

8월말 전국 평균 320.1만원... 제주 333.4만원

신규로 분양된 민간아파트의 단위면적(㎡)당 평균 분양가격은 올 8월 기준으로 320만1000원을 기록한 가운데 제주지역은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전국 민간아파트의 분양보증 사업장 정보를 집계·분석한 2018년 8월말 기준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 결

과에 따르면 전국 민간아파트의 최근 1년간 ㎡당 평균 분양가격(이하 ㎡당 평균 분양가격)은 8월말 기준 320만1000원으로 전월대비 0.16% 하락했다. 전년동월대비 4.81% 상승한 수치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471만 5000원으로 전월과 같았고, 5대광역시 및 세종시는 0.26% 상승, 기타지방은 0.6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은 333만4000원으로 7월과 변동없었으며, 지난해 같은기간 333만 5000원에 비해서는 다소 낮아졌다.

앞서 지난 7월 분양가격적인 경우 기존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분양된 서귀포시의 영향과 전년동월 분양내역이 7월 집계대상에서 제외된 제주시의 영향이 더해져 ㎡당 평균 분양가격은 전월대비 15.07% 하락한 333만 4000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규모별 민간아파트 ㎡당 평균 분양가격 분석결과, 전월대비 평균 분양가격은 전용면적 85㎡초과 102㎡이하(-1.58%), 전용면적 102㎡초과(-0.78

%) 순으로 하락했다.

전국 신규분양 민간아파트는 총 7098세대로 전월(8342세대)대비 15% 감소, 전년동월(1만9308세대)대비 63% 감소했다.

기타지방의 신규분양세대수는 총 3093세대로 전년동월(9269세대)대비 67%가량 감소했으나, 이달 전국 분양 물량의 43.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제주지역은 102세대로 285세대였던 7월과 지난해 같은기간(231세대)에 비해 절반가량으로 감소했다. 자세한 정보는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상윤기자

부동산 문의는 제주향공인중개사로 064)723-8850 010-8411-1110

등록번호: 제 50110-2017-002100호 대표공인중개사: 노진업 위치: 연복로 606, 3층

공인중개사 제주컨설팅 726-4585 010-8660-1263
와솔리 계획관리지역 창고 대지 2,100㎡ 창고 2동 640㎡
표선면 가시리 계획관리 35,000㎡ (2차선점, 임·과)
•애월 광명 계획관리 별장지 1,800㎡(대) 주택 1동
•애월 광명 계획관리 별장지 3,000㎡(임)
•조천읍 북촌리 전 3,000㎡(자연녹지, 맹지)
•조천 신촌리 자연녹지 1,600㎡(대도로점)
•한경면 저지리 전 (11,000㎡) 계획관리지역
•한림읍 웅포리(주거지역) 2,000㎡ 바다점

동부공인중개사 010-2800-4595 064-747-5115
* 서리동리현일빌딩 3F 대지/공인중개사부부복
* 아리동기차촌내 1090㎡ 9.24억
* 유수암 펜션 건물488㎡ 대781㎡ 6억원
* 유수암 2차선 번 주택확공 토지 519㎡ 2.9억
* 두모 해안선점한 취락지구내 1006㎡ 7.6억원
* 신창 2차선점 2층주택 233㎡ 대지 331㎡ 5.5억
* 중문서측 일주도로 4차선 점 토지 8,244㎡ 4억
* 판포 바다경관 곳 자연녹지 3028㎡ 6.4억원

덕진공인중개사 010-6327-1552
유수암리 임. 990㎡ 전원주택지, 건축허가 득 바다, 산, 경관 양호 3.3㎡ 당 170만원
상대리 과. 2,300㎡, 계획관리지역 천혜향하우스(1,880㎡) 바다경관 양호 5억
부동산 매매 상담

ECO 에코부동산 대표공인중개사 강민경 전화 064)748-7978, 010-9918-7979
NAVER 검색상위 제주도방플러스 흥취번호
원룸·투룸·빌라·아파트 매매, 임대 전문

광개토부동산 탐라 대표공인중개사 손명규 대표전화 064)742-9306
아리2동 462㎡ 1층 일반주거지 8m계획도로점 구축포함 8억
한림읍 수원리 주택지 512㎡ 건축허가 농지전용비 포함 2차선점 2억3천
고산리 1,224㎡ 계획관리지역 2차선 아스콘점 3.3㎡당 45만(총 1억6천5백만)
남읍리 2차선도로점 5,630㎡ 펜션 5동 총건평 493㎡ 매매가 23억원
이도이동 상가주택 대지 498㎡ 건평 396㎡ 4층 신축건물 매매가 13억

일출부동산중개사무소 전 화: 757-4807 휴대: 010-3691-0852
아파트 및 건물 매매
•해안공동묘지 최고(609㎡) 184평
•한국병원 동쪽 대지 200㎡ 건물 615㎡ 위치양호
•투룸 보증금 50 월 42만원 즉시입주가능
•한국병원 동남쪽 132㎡ 아파트
•한국병원 앞 원룸 61㎡
•한국병원 앞 원룸 15평형 매매
토지매매
•구좌읍 동북리 2,998㎡(관리지역)
•도두1동 410㎡
•구좌읍 행원 잡종지(관리지역) 3,524㎡
•우도면 연평리 1,504㎡ 3,365㎡
•우도면 연평리 4,945㎡
•무릉리(관리지역) 12,506㎡ 급매